

掛け替えのない経験

ハン ギョンエ

(韓国カトリック大学校言語文化学部日語・日本文化専攻2年)

私は2001年2年生の1学期を終えて休学しました。学校に通う時は試験やレポートなどで行きたくない時もたくさんありますが、やはり休学していれば学校は懐かしくなるものです。特に3年生になって専攻の代表になった友だちの話の聞くと(日本の大学との交流とかM.Tなど)学校に行くと皆と一緒にいろいろな行事に参加したくなるのです。その時から私は、信州大学との親善交流を待っていました。

復学してからいつのまにか信州大学との親善交流の日が近づきました。どんな学生達だろうか、相性があう友だちができるだろうか…。私は日本人の友だちがいなかったので良く話せるか、話題はどうするかなどで不安だったです。でも信州大学の方々は皆優しく、日本語が上手ではないのに良く話を聞い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たかったです。

代表の友だちと一緒に交流の仕事を手伝いながら1週間研修院の生活が始まりました。朝早く起きていろいろな行事の準備をするのはそんなに簡単なことではなかったです。(特によく朝寝坊をしてしまう私にとっては…)。

風邪気味であったこと・仕事の手伝いと進行が上手ではなくて皆にあまり力になれなかったことなど、容易なことではなかったです。でも、共励まし合いながら1週間の日程を計画通りに進行するのができました。1週間合宿しながら直接相手のことが感じられて、信州の学生達と親しくなったし、簡単な会話は良く話せるようになりました。大事な経験です。特にホームステイと演劇が一番記憶に残っています。演劇を見たときはすごく感動してしまって涙が出たくらいです。ここで“すごい!”を何回も叫んでいる私でした。

信州からもいろいろなことを準備して来てくださいました。日本の生活が感じられる写真や雑誌などを準備して授業の時間に説明してくれたし、また、沖先生の講義も印象的でいろいろなことを考える機会が持てました。

今回のカトリック大学校と信州大学の交流はお互いに役に立ったと思います。

1週間は短かったけど、その時私が得たものは時間に比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掛け替えのない経験です。そのなかでも一番大事だと思うのは信州大学の人と会えたことです。そして友だちになったことです。心から心配して励ましてくれたことは本当に感動したし、そして風邪気味だった時に中野先生がくださった薬も本当ありがたくてなみだがでました。私にとっては(たぶん他の人もそうでしょうが)すべてのことが感動だったので涙がちょっと多かったようです。

来年も再来年もこの交流は続くもので、私の後輩にも伝えたいです。

最後に先生たちと信州・カトリックの学生に感謝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소중한 경험

한 경애

(언어문화학부 일어일본문화전공)

저는 2001 년에 2 학년 1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시험이나 레포트에 치여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역시 휴학을 하면

학교는 그리운 법. 특히 3 학년이 되어서 전공대표가 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일본대학과의 교류나 M.T 등) 학교에 가서 함께 여러 행사를 참가하고 싶어집니다. 그때부터 저는 신슈대학과의 친선교류를 기다려왔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서 어느덧 신슈대학과의 친선교류가 다가왔습니다. 어떤학생들일까, 성격 잘 맞는 친구가 생기게 될까... 저는 일본인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말은 잘 할 수 있을까, 화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불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슈대학의 분들은 모두 친절하시고, 일본어가 서투른데도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표인 친구와 함께 행사 일을 도우면서 일주일간 연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가지 행사 준비를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늦잠을 잘 자는 저에게는...) 감기기운이 있어 조금 아프기도 했고, 일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 모두에게 힘이 되지 못했던 점 등, 모든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격려하고 노력하면서 일주일간의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합숙에서 직접 상대를 느끼고, 신슈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간단한 회화 정도는 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경험입니다. 특히 홈스테이와 연극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연극을 볼 때는 정말 감동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단하다!'를 몇번이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신슈에서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일본의 생활이 느껴지는 사진이나 잡지 등을 준비해 와서 수업시간에 설명도 해 주었고, 오끼선생님의 강의도 인상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가톨릭대학교와 신슈대학의 교류는 서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만 짧지만, 그 기간에 제가 얻은 것은 시간대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우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소중하다고 느낀 것은 신슈대학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걱정해 주고 격려해 준 일들에 정말 감동했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나카노 선생님께서 직접 약까지 갖다 주셨던 일도 정말 고마워서 눈물도 났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모든 일들이 고맙고 감동스러웠기 때문에 눈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교류기 계속 될 것이고, 후배들에게도 이 느낌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 신슈대학, 가톨릭대학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